



2025년 5월 18일(제1247호) 부활 제5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헌신과 영광”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곤 합니다. 그 마음은 선물의 형태로 전달되기도 하고, 희생이라는 형태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는 헌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 헌신은 경우에 따라서는 헌신하는 사람이 아닌, 그 헌신을 받는 이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선물하시는 당신의 생명은 ‘성령’이시며, 성령께서 곧 ‘하느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느님께서 아드님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드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위하여 당신 피를 흘리심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 하시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당신 성령을 통하여 아드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아드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부께서 성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랑이고 헌신이며, 성자께서 성부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한 이 삼위일체 신비가 모든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위하여 당신 생명과 같은 성령을 선물하시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랑이고 헌신이며, 교회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 서로 영광스럽게 될 수 있음을 압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헌신을 통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할 때,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의 성령을 또 보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만이 하느님과 이웃에게서 영광을 받습니다.

헌신하는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랑과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찾아온 아름다운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진심을 모아 오늘 미사 중에 은총을 청합시다.



미호상(이브리힘) 신부
승리(육군 제15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답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사도 14,21ㄴ-27

◎ 저의 임금인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묵시 21,1-5ㄴ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영성제송

요한 13,31-33 7.34-35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동정부부 순교자 복자 이순이 루갈디 옥중편지

2. 이순이(李順伊) 루갈다가

친언니와 올케에게 보낸 편지

나를 그리는 정이 있거든 나를 보는 듯이 펴보십시오.

우리 형제 내년에 만나자고 약속하고 이별한 지 어언 사 년이 다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세상일을 어찌 미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 년간 떨어져 지낸 심사도 견디기 어렵거니와, 끝도 시작도 없는 영원한 이별이야 더욱 어떠시겠습니까? 쓸모없는 이 아우로 인하여 마음 괴로우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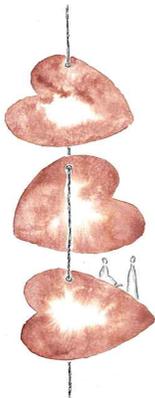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 언니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이라서 슬기롭고 어지시니 잘 참으실 것입니다. 마음을 진정하실 것이지만 쓸데없이 염려됩니다.

혹시 형님들이 괴로운 생각이 들더라도 마음속에 사사로운 정을 두어 무익한 분심을 갖지 마십시오. 부모 자식 간의 정과 형제간의 정은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동정부부 순교자 복자 이순이 루갈디 옥중편지』 발췌, 진주교구 치명지산성지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복 음 록 상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사랑한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사랑해.
예, 저도요.

베드로야! 사랑한다.
예, 저도 사랑해요.

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
사랑을 전해줬습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스크로베니 경당



지오토(Giotto, 1266-1337) / 1306년경 제작
프레스코화, 120x60cm
이탈리아 피도비

지오토의 스크로베니 경당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최후의 심판화뿐 아니라, 중세의 7가지 선덕(신심, 희망, 박애, 분별, 정의, 강인함, 질제된 성품)과 7가지 악덕(질망, 질투, 분노, 부정(infidelity), 변덕(일관성이 없는, inconstancy), 부당, 이리식음)에 대한 알레고리화(추상적인 주제를 의인화하여 그린 회화 작품)도 제작하였는데, 그중 박애와 질투를 소개한다.

먼저 박애를 보면, 곡식 자루 더미 위에 서서 한 손에는 갓은 과일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느님으로부터 심장을 받아 들고 있다.

질투는 커다란 귀와 뿔이 달린 추하게 생긴 노파로 그려졌는데, 입에서는 뱀이 기어 나오고 자기 자신을 물려고 하고 있으며, 한 손에는 돈주머니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은 허공을 향해 공허하게 뻗어 있는데, 질투의 화염에 자신의 발이 타들어 가고 있다.



박애(The Seven Virtues: Charity)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박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느님께서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우리도 타인에게 우리의 심장을 줄 정도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화가는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질투(The Seven Vices: Envy)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5주일: 통일대 정비오 신부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많은 청취 바랍니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 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활동: 군 부대 위문, 교구 내 행사 시
문의: 010-6276-2709

“산양 회복과 성장을 위한 건진성사의 해” -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